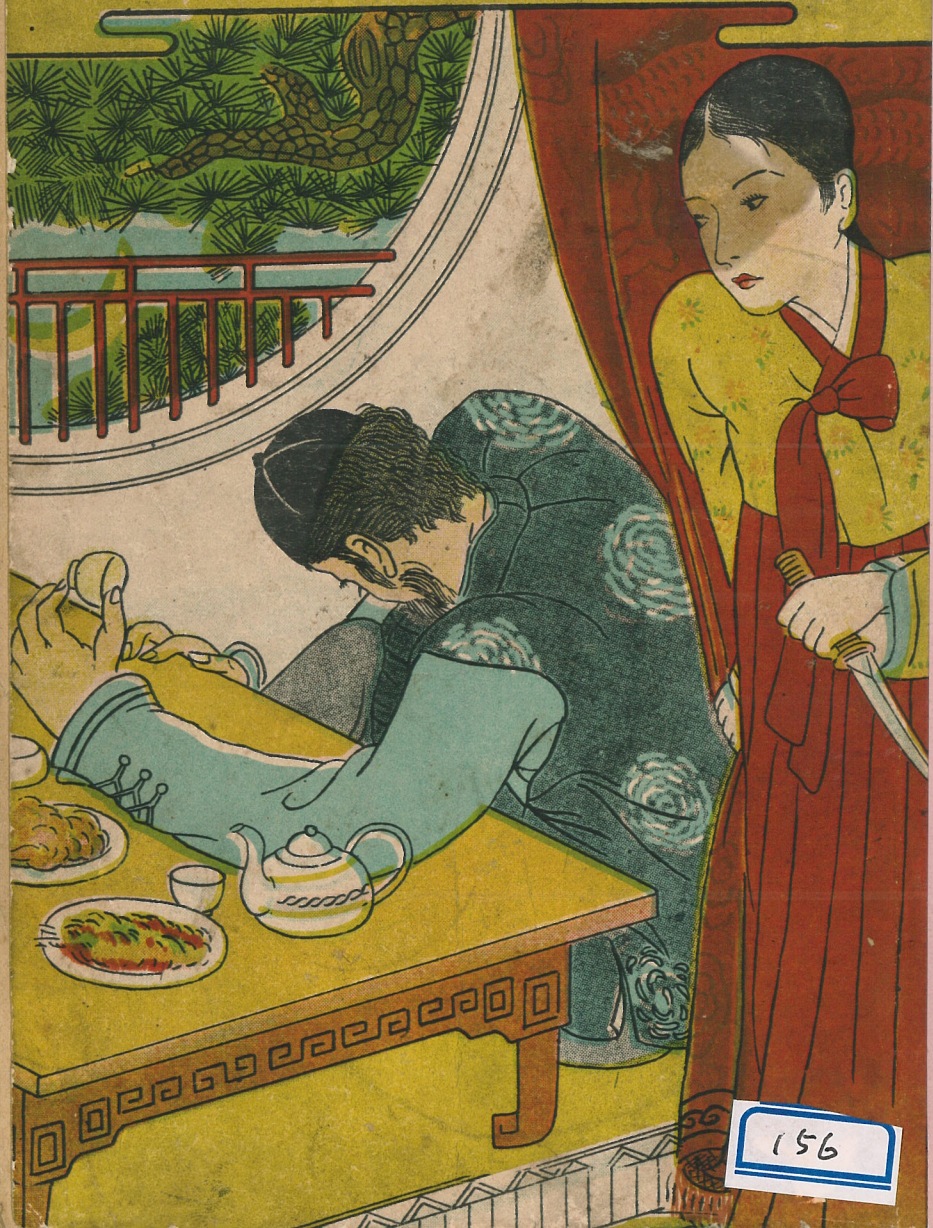


滿洲  
哀話

# 白衣女

백의녀



156

ch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entimetres

KODAK Color Control Patches

©Eastman Kodak Company, 1977

Kodak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Brown  
Black



白衣處女

북역나라 만주국의 황야에는 우라조선민족의 피땀으로 우순풍조하야 사야는  
황금을편듯 가을경색은 풍양하기가 전무한 대풍이다 배이삭한알에 관개가업  
는 사람으로도 지대다가 보면 누구던 지물론하고

아! 대풍이다 하나님의 우순풍조하신 혜택으로 억조창생을 살이시도다 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하고 하새이만면하야 무한이 하나님을 찬송하려든 하물며 삼복중에 불갓흔데  
양을지고 등이버서지도록 근농한농부들이야 이것을바라볼때에 그얼마나 깃  
거하랴 농부들은 징 땀과리를장단맛치을이면서 만주의 년풍가를 힘있게부  
른다

만주의 첫초튼별판은?  
우리의힘으로 다시옥도되엿네  
몇천년 옛수인일코서.....

그멋치요 을갓치 조...

登錄番	3173
分類番	
圖書番	



남에게 일어나 서를바닷나  
북만 호지에 무화초라는 별명은  
우리가 무정이니를 버린연고다  
오날々 우리는 너를다시 차져왔노라

옛정을 잊지 말고 반가히마져다구

이와갓치 년풍의 흥을겨워 히々락하며 말맞쳐 격양가소리에 잔주별관이 떠날  
듯이 절으는데 배이삭 조이삭도 순풍을마져 우줄 (춤을춘다) 만주에 이주  
하야잇는 동포들이 이와갓치 년풍에 질거하는중에도 한숨을만주가 떠날듯이  
후! 내여쉬며

년풍이드러 조키는하다말은 내게당하여서는 풍년이드렀다하여도 풍년들고글  
머죽을돌은 이놈의불쌍한 가족들이로구나

하고 백말이성々한 오십가량의 농부하나는 년풍가부르는 소리를들다가 국자  
가 선존이라는 동리로드러가는데 전진에 힘은조곰도업고 얼굴에는 수심이  
득하다 이때에 이십가량의 청년하나이 뒤를슬々따라서며 여보세요 순회아버  
지는 왜그러케 힘이업시가심닛가 저년풍가々 좀! 듯기죽습닛가 저년풍가를  
드러보세요 졸졸습닛가

한말을하

창선이냐 나도 조흔줄은 안다마는 내게당하여서는 조흔것은 〓 〓 도 조  
흔줄을 모르겟다

왜 그러세요

풍년당하고 글머죽을돌은 이놈의 선세닛가 그러치 무엇이 조겟느냐 풍년당  
하고 남의뱃은 갑하야하지 안이갑고될말이나 제일너의 아버지께 갑돌것짜  
닥에 쓴일났다

창선은 우스며

아버님께 갑돌것이 얼마나되는데요

이백원이나된단다 이이 추수를하면 것가량에 오십석은 되겟는데 오십석이  
지고 될말이나 남의뱃을 만도갑돌수가업스니 내게당하여서는 풍년이지만  
풍년당하니말도 못하다

창선은 의아한눈으로보며

엇지해 그러세요 풍년을 다하진것이 풍년보다는 나을것이 아니오닛가  
암! 물론 풍년당할것보다야 나을것이 지 그러나 내게당하여서만 그러하다  
는말이다 작년에는 풍년을당하여서 너의 아버지께도 금년으로 미려은거너  
와 을갓흔 풍년에 또무엇이라고 될지하고 아니갑는단말이나  
그렇치요 을갓치 조흔해에 못갑는다고야 할수잇습닛가 그렇지만 순환을하



지지요

엇더케 순환을 해!

이백원을 갑흐서고 다시들나 이백원을 쓰시면 될것이 아니오닛가  
그리했스면 조깅은더 너의 아버님이 드러주실것짓안쿠나  
그러실리가잇나요 대금업을 아니하시면 모르거니와.....저 민족이다른

중국인이나 만주국인도 주시는데요? 만약에 저의아버님이 듯지아니하시  
면 제가말삼을잘하야 되도록할터이니 제말대로하여보제요  
하고 천절하고도 다정하게말을한다 순희의부친은 창선의말을듯고

그러면 너하라는대로 할터이니 네가 말삼을하야 이백원을 되돌나쓰도록하  
여다구

네 녀며마시고 돈을맨들어가지고 오십쇼 제가되도록하여 드릴터이니요  
그러면 나는 너만씩밋는다

하고 지재지삼 당부한후에 과연 창선의말과갓치 추수를하여 이백원을 작만  
하여가지고 창선의집으로왔다 창선의부친은 김원일이다 경성사람으로 수십  
만원의 자본을가지고 만주 국가가신촌이라는데와서 대금업을하고있다 조선  
농민은 물론이요 중국인이나 만주국인도대용을하여주고 일년만에 수봉을하  
는데 만주일판에서는 김백만이라고 별명을듯고있다 원일은

여조사를하며

을것은 풍년에야 저의들이 무엇이라 핑계를하고 갑지를아니할까

하다가 순희의부친이 온것을보고 반기며

아! 경렬군인가 오래간만일세그러어서오게

하고 환영을한다 경렬은 방에드러가안지며

원일군은 그간무고한가

어! 나는무고하이라는 경렬군대내도 무고하신가

무고한모양일세 그런데나는 원일군에대하야 불낫치업네

그것은 무슨소리인가 무엇이 불낫치업서.....

어느빛진죄인이라니! 자네에게 갑힐것을 못갑혔스닛가하는말일세

별소리를 다하네 갑흐면 고만이지 불낫업을잇나

그야그렇치만? 자네에게 또신々치 못한소리를 하게되닛가 하는말일세

원일은 이말을듯고 눈을크게찌르며

그것은 무슨소린가 을것은 풍년에 신々치 못한소리를하다니 말이되나 대관

절 경렬군이 갑힐것이 얼마나되는지아나

이백원이아닌가

그런치 이백원에 삼년간리자를할하면 년이활이니가 이백륙십원일세 이것



도 자네네가 경변으로 그러한것일세 저! 다른 사람은 오할이식을 밧네  
런줄이나알게  
감사한일세

대관절 돈은 해가지고왔나

가지오기는왔네

그러면 되엿네그러아! 시원이되엿네

하고 채용증서를 골나내여노으며

자 이것이 자네 증서일세 알겠나

알겠네 그런대 이것은 갑기는갑지만 되돌나 또 좀주어야하겠네

글세 또 쓰드래도 갑고나서 할말이지 돈을내고 이것을 저가게

자! 그러면 내말을드려주어야하네

하고 이백륙십원을 내여주었다 원일은 돈을바더세여보고 증서를주었다 정렬

은 증서를바더노코

자! 이백원은 도로주어야하겠네

여보게 을갖흔해에 갑지를못하고 또지면 잊지한단말인가

나도그런줄은아네마는 내사정이 또 좀써야만하겠네

무엇에 쓰라고 그리하나

자네아득키 저지연을다려오라고 그리하네 지금이십이니 갖가운것을 경성

에다가 저지연을하여두고 나는만리밧게 이리케와서잇스니 참아사람으로

할노릇인가 그리해서 자네에게 이백원을 도로어더서 자식년움을 빼여오라

고하네 그뿐인가 풍년을고 굴며죽게되엿네 자네돈갑느라고 소위추수한것

을 다파랏스니 삼동은 무엇을먹고 사라난단말인가

먹고사라나기야 사라나겠지 을갖흔 풍년에 굴며죽다니 말이되나! 그런대

자네 짚은 엷지되엿단말인가

흥! 자네더러도 붓그리워말을 이제것아니하엿네 당초에 내가 이곳을올때

에 어디 무슨로비가잇나 그리해서 생각다못하야 열일급살된것을 서대문박

사는 박가에게 일백원을밧고 수양으로 주지아니하엿나 박가는 순회를일

년간이나 조선권변에보내여 가무를가라치고 지금이야 영업부로 남의내의

주점에 삼십원식밧고가서잇스니 소위아비가되여서 할노릇인가

백원을 썼다하면서 이백원은 해서무엇하나

흥! 과막히네 이백원도 부족이나 아니될지모르겠네 영업부로나서지 못하고

가무를 배오라다니는 동안에는 매월 의식갑이 심오원식이라네 일년이상

을심오원식 족스니 그것이 얼마나 되겟나

그러면 지금은 영업부로드러가서 삼십원식을 밧는다면 그돈은누가 차지를



하나

그것은 물론 박가々 차지를 할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돈으로 몸값을 갚아가는것인가

그런데 그것으로 몸값을 갚아간다고하데

그런데 무슨걱정을하나 백원이라는 몸값을 몇달아니면 갚을터인데

그런치 아니하다네 가무배을등안에 이백원돈이나 갓가지졌지 몸값이백원이

지모다 삼백원이나되는대 삼백원리자를 갚아가지 또저의 화장비로심여원

식 소비가되지 그리하면 몸값은 한푼도 갚을수가없다네 그러니 괴막혈일

이아닌가 저자식은 영々내외주점으로 영업부로만 도라다니는 신세를짓고

말것네그러 그리해서 몸값이나 갚아주고 다려오라고 자네더러 이백원을

도로 돌려달나는것일세

원일은 처음에는 동정을하는듯이 자제히 무려보더니 무삼생각이나던지

여보게 자네사정은 그것치만 청을 드러줄수가없네 아주단념하게

하고 거절을하여버린다 영렬은 이말을듯고 나심천만하며

자네가 그게정말인가

물론정말이지 거진말하겠나 왜 한달에삼십원씩이나 부는아하을 몇백원을

주고 다려오라고하나 내게서 이백원을가저가면 그것은 빚이아닌가 빚지기

이니 그냥내버려두게 제몸으로 갚아버리게

그야자네게서 갓다쓰는것도 빚이지마는 이리다려오면 만리거리나되는대 혼

자있게하는것보다 나을것이아닌가 좀생각을잘하여서 청을드려주게

가저가면 엇더케 갓갓단말인가

을에야 할수있나 명년에갓지

명년에! 명년에는 별수가있나 을갓흔해에는 하나넉덕택으로 풍년이나다

러서이러케 갓하겠니와 명년에도 또 풍년을바라고하는말인가 박정한말

이지마는 할수없네

하고 아주거절을한다 영렬은 빈자소인으로 원일의 거절을당하면서 도 지재지

삼애걸하였다 그러나 원일은 종시거절을하여버린다 영렬은 한숨을후!쉬고

창밖글래다보았다 창박을내다보기는 창선이가드러와 찬성이나 하여줄가합이

라 이때에 창선은 자괴방에잇서 부천이거절하는말을듯고 속으로

아이구! 아버지도 잊지하시면 저러케 박정하게 거절하실가

하고 무슨생각을 한참하다가

아! 그러니가 순회는 몸이 영업부로 팔이여 다니지아니하나.....불상한

인생이로다 내가 아버지께 말삼을하면 드러주실가 만약에 아니 드러주시면

내가 돈을변통하야 순회를 이리다려오게 할수밖에없다



하고 부친의 방으로 건너갔다. 경렬은 창선이가 두려움을 보고

올라 창선이가 나의 청을 드러주라고 하라나 보다

하고 무한이 깃거하였다. 창선은 부친의 업해가 안지며  
아버지! 순화아버지의 사정이 딱하니 말삼대로 소청을 드르시지요

하며 원일을 바라보았다. 원일은 창선을을 물그림이 보며

너는 이런일에 참참마려라. 대금업하는 사람이 남의 사정을 이토록 아줄수가  
있는나. 올갖은해에 못잡고 또지면 언제갑게

창선은 우슴의낫호로

아모리 그러하여도 사정볼대는 보아야지요. 이런만리 이역에와서 갓흔민족  
이이사정을 아니보면 엇지합니까. 그뿐아니라 리경렬씨는 고향에서도 한  
동리를이웃하여 형제갓치 정분이두터와지내엿고 또는 겸하여 만주로오기  
도 우리로하여 오지아니하였습닛가. 그런데 동정을 아니할수가잇습닛가. 다  
른사람의 청은아니드르실지라도 경렬씨의 청은드르셔야합니다.

하고 애원하다 심히 간권을하였다. 원일은 화를더럭내며

이 자식이 너는 무엇을알고 하는말이나. 아버가 압뒤형편을보아서 어떤이아  
라할나구. 다시는 잔소리마려라.

하고 강경이부짚고 거절을한다. 경렬은 원일이가 아달의말도 듯지아니함을보

고 모든일이 다들이엿슴을 깨닫고 고만홍분은 극도에달하여 별색이러서며

에이여보게! 자네가 이러케도 인정이업단말인가. 내가 당초에 여기올때에  
는 자네를밋고 오지아니하였나

나를밋고오다니

그럼 이곳에나의친척이있나. 아는친구가있나. 오직알기는 자네하나뿐인데  
자네가편지로 경성서 생활지가어렵거든 만주로오면 경성보다는 살도라도  
나을것갓고 내가잇스니가 서로의지하여 지낼수가잇다고 하기에 참으로 나  
의사정이 경성서는 지탱할수가업기에 자네편지를바다보고 엇지반갑던지  
할수잇든가 생각다못하여 딸자식을 백원을밋고 그돈으로 러비를하여가지  
고 마누라를다리고 여기를왔스니 당초에자네가 오라는말을아니하였든들  
자식을따라가지고 여기를올리가잇나

원일은 눈을크게떠보며

여보게 자네가 딸판것은 물트게네마는 자네가 여기와서 나로하여해로운  
것은 무엇인가. 삼년만에 지낸것만하여도 나의힘이라고 할수잇지아니한가  
그야그렇지만 자네가 보와준것해 좀더보아주는것이 엇더한가. 나는외로이  
경성에 떠려져잇는 자식하나를 다려오라고하는것일세

글쎄 사정은 그런줄알지만 나는보아줄수업네



무슨 감정이 있서 그리하나 감정을 알고나잇스면 속이나 시원하겠네  
 흥! 감정을 알아나 작년 못더 마영찬을 알고 지내지 아니하나  
 그랬치 마영찬만 하여도 내가 그 사람의 힘을 마니 입고 지내네  
 허허 그러닛가 인제는 아니라고 너々이 자네를 보아줄 사람이 있지 아니한  
 가 그런데 나더러만 말할 것이 무엇인가 마가더러 말을 하여도 너々 할 터인데  
 여보게 나만 하여도 여복하야 그 사람을 천하여다니나 좀 압흐로 조홀도리나  
 잇슬가 하는 것이지

글세말이야 그러니 마가더러 말을 하라는 것일세 작년만 하여도 나의 돈은 아  
 니 갑고 마가의 돈은 갑지 아니하였나

그것으로 감정이 생기었나 마가의 돈으로 말하면 그놈의 돈은 아니 갑흐면 그  
 놈이 우리 동족과 달나서 그놈에게 천디여 날 수가 있나 그놈에 쌍십일정하는 것  
 도 떠러지스 안겠나 그리해서 갑흔 것이지

그러닛가 마가더러 말을 하야 돈도 더 잇고 전답도 더 잇게 그러  
 여보게 자네가 녀우나 이리하는 것은 야속하야 암만 마가는 천할지라도 밋기  
 는 자네만 밋고 지내지 아니하나

여보게 대관절 마가를 엇던 사람으로 알고 천하여다니나  
 엇던 사람인지야 알 수가 있나 나는 무산자이닛가 물론 모인 하고 유산자를 천하

나를 가라쳐  
 하 그 힘을 입자는 것이지

그러키야 하지만 사람을 천할 때에 그 사람의 선불선을 알고 사귀여야 하네 마  
 영찬으로 말하면 조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업스니 마가의 압헤 잇는 사람들이  
 나는 무서운 사람으로 아네 자네도 반질작은 하겠네 그러 마영찬의 촌락에 이  
 십여호가 모여 살지마는 그 사람의 하는 것이 무엇인지야나 그 사람들의 하는  
 것을 보면 산양으로 업을 삼나보네 그러기에 낮이면 총이나 칼을 가지고 산  
 중으로 드러가 산짐승을 잡아다가 살들은 먹고 가죽을 벗기여 팔지  
 또 다른 것은 업든가

산양아니가면 농사를 하나보네

또 다른 것은 업든가 밤이면 무엇을 하는 줄이나 그 내막을 드러다보면 무서  
 운 사람들을 일세 만주의 명을 들이야 외면으로는 산양이나 농사를 하는 체하야  
 군경의 눈을 피하지만 밤이면 또 영업삼아 하는 것이 있다네 알겠나

경멸은 그제야 깨닫고

아! 그러면 마적이란 말인가

나더러 무리볼 것이 아니라 자네가 생각하여보게

창선은 열혜서 이 말을 듣고 대경실색하며

아리님! 이곳이 어느 곳이라고 그런 위험한 말을 하심닛가 이곳에서 그는 그



런말삼을 하실곳이 아니옵시다 사람의 속을 알수가잇습닛가  
하고 자기부친의 신변에대하여 위험함을 녀녀하기를 마지아니하며  
순회아버지께서는 저의아버님이 이런말삼하신것을 입맞게 내지마실쇼마  
가々듯고보면 위험합니다

하고 경렬을 바라본다 경렬은우스며

녀녀마라 내가 그런말을 할리가잇는나 마가々드르면 큰일날걸!

원일은 조금도 겁하지아니하고

큰일은 무슨큰일이야 제가나를엇지할가 아니할말로 밤중에 우리집을 습격

은 못할터이지 군경이 검의줄을치듯한 이곳을! 녀녀업다 그런것을 겁을

내면 이곳에서 엇더케 산단말이나

하고 태연한안색으로 경렬을보며

사실 이곳에서 마적을 무서워하면 엇지사나 그러케 위험성이마느면 안전

지대인 우리고향에가서살지 그대 자네가 마영찬이더러 내말을할터인가 하

는날은 자네가 마가의비밀을 누설한것이닛가 자네부터 그놈에게해를 입을

것일세

전서도 뒤녀녀가 업지아니하야 경렬이신변부터 주의를준다 경렬은마음이

가할리가잇나 그말을하면 자네도 자네려니와 나부터 봉변일세

나를가라치지 아니하면나는생각이업겠나 그는녀녀말고 내청이나 드러주게  
하고 또자과의 소청을말하엿다 고집성이 세인원일은 조금도양해가 업시무정  
하게거절한다

글쎄 여보게 내가한번 말한바에 또다시말한다고 듯겟나 이번은 자네말을

드를수가업스니 단념하게

경렬은 종시원일이가 거절함을당하고 고만 무명영화가 머리뺏까지 이러나눈

을크게뜨고 두주먹을 불끈쥐며

에제천하에 말못할 인정갓흐니.....이국놈의 인심으로도 이리할수가업겟

네

하고 소리가나오는줄도 모르게질넋다 원일도 경렬의 연사가불호하게 나옴을

보고 대항안이할수업다

여보게 자네가 누구를 압제인가 내돈가지고 내가아니주는대 왜이러케고

성을하고대여드나

하고 마주낫출려기며 고성을하엿다 경렬은 고만자과의 소망이여지업시 실패

당함을보고

에라인제는 여지업시 실패를당하엿스니 무슨뒤를볼것이잇는나

하고 압혜노인 차종자를 집어 차물을 원일에게세연지며



이 말 못할 인색가야 참으로 이리 할 줄은 나는 몰랐다  
원일은 급히 이러나 옷압헤서 연진 차물을 수건으로 싸서며

아름이 환장을 하였나 연공리 순하게 달나 하여도 될지 말지 한데 막위협적  
을 쓰니 마영찬이 놀과 천하여 다니더니 그놈의 수단을 배와나 보다 이놈아 이리  
하면 아모일이 업슬 줄 아느냐 이곳에도 사람이 살적에는 악육강식하는 것을  
제지하는 법률이 자재하겠구나

하고 하날이 앓다 하며 펄펄 뛰었다 창선은 불호한 광경이 이러남을 보고 가운  
대가 드러서며 경렬을 주먹으로 때려 밀면서

여보시오나는 경렬씨가 그런 줄 모르고 아버지께 말씀을 하야 돈을 갖다 쓰시  
도록 하여 드리자 하였더니 이갓치 과거한 행동을 하니 어디 돈가지고 돈취리  
는 마음대로 하겠소

하고 창선의 음성도 파분에서 나왔다 경렬은 창선이 가 띄여 미는 주먹을 두손  
으로 막으며

이놈들 보아라 돈만 잇스면 이러케들 하는냐 제 조와 인심을 어드라고 하였다  
이곳이 었던 한 곳이라고 돈푼이 압해 잇다고 이리들 하는냐 화무십일홍이요  
언무십년세이란다 녀의 부자가 돈이 잇스면 얼마나 잇스며 얼마나 지탕을 할  
것이나

것이나 하고 여지가 업시 극도의 연사를 쓴다 창선은 경렬이가 천만의 외에 이갓  
흔 연사가 나음을 보고 말할 수 업시 흥분이 되었었다 그리하여 경렬에게 대어들며  
당신이 이러케 하는 말이 진정에 말이요 그러면 조치 못하리다

하고 고성을 하였다 경렬은 압뒤 경우를 생각할 여지가 업시 되었었다 자기의 소망  
이모다 수포에 도라가고 마릿스매 무엇을 시야리랴 창선에게 대어들며

이놈아 그러면 진정에서 나오는 말이지가 정에서 나오는 말이나 나도 분한 일  
이 잇서 그리한다 내가 이곳에 와서 지금껏 서로 천형제갓치의 지를 하며 네아  
버지 세후음을 마니 입어 왔다 네아 버니의 후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

야 내가 물질적으로 동정을 표시는 못하였지만 정신적으로 동정을 마니 하며  
네아 버니 신변에 대한 일이면 무형적으로라도 내 신변에 대한 일갓치 알고 지

내엿거든 오늘날 나를 이와갓치 거절할 하고 마영찬이를 천하여 다닌다고 시귀  
를 하여 말을 하시니.....나만 하여도 마영찬이가 조흔 인종으로 알고 천하여

다니는 것이 아니다 나도 이곳에 와서 녀의 부친이 보아 주는 단독 힘으로는 나  
의 바라는 바를 도달하야 남부럽지 아니한 사업을 하여 볼 수가 업스닛가 민족

다른 놈이라 도 천하야 두는 것이 아니냐 마가로 말할 지라도 내가 그놈을 천한 후  
해로운 것은 손톱만 만치도 본 것이 업고 후원은 마니 밋고 잇다 사람을 사 피 일

때에.....무슨 사업을 하여 보자고 할 때에 어디 갓흔 민족 다른 민족이 잇는 나



이 민족이라도 질사파였다가 활동할때에 활동하면 필요치 아니하냐 너는 사상이 었더한지 모르겠다 마는 나는 이곳에 온 후로는 경성잇슬때에는 사상이 다르다 이것치 험한곳에와서 경성잇슬때 안온한성미만 가지고 잇스면 될말이나 염손여김을 바듬은 둘째이요 귀신도 모르게죽는다

하고 부라리는 두눈에는 이상한 살기가 돈다 창선은 점々인사가 극도로 불호함을듯고 속으로

양호상투에 일호필상이라 두분이 이것치 닷투다가는 한분이 필연상하시고 말이라

하고 경렬의 손을잡으며  
경렬씨 이러케 과격하시실것업소 나의아버님만 하시드래도 과격살수의 말삼은 아니지요 참으로 이곳에서는 위험인물을 사귀고보면 큰일난다 잘못하면 생명을 빼앗깁니다 그러닛가 아버지께서 경렬씨에게 충고하시는 말씀이올시다 그러니 그리양해하시고 맥으로 도라가세요 제가 곳 맥으로가서 뵈옵겠습니다

하고 격분된마음을 안유시키었다 경렬은 더잇서야 필요업습을 빼앗고속으로 격분중에도

더잇서 닷투면 무슨소용이잇스라 이러케 아달이말일때에 못나기는체하고

집으로 도라가는것이 상책이다

하면서 그냥도라서오는것이 비겁하여보이기도하고 용열한것도갓하여 돈이잇다고 사람을 넘우염손여기지마라 나도오날은 이와갓치 빈곤하다가도 내일벗터는 잇지될지아는나 나는 엇더케하던지 오날이와갓치 멸시당한분푸리를하고말겠다

하고 원일에게 주먹질을한다 원일은 분에못견디여 씨근거리며

이놈아 네가 내게대하여 분푸리를하면 엇지할터이나 나를 죽일터이나 죽이라거든 지금이라도 죽이여라

왜너를죽이여! 나도 엇더케하던지 너만큼 돈을모아서 분푸리를하겠다 하는말이지.....내가 가만잇슬줄아는나 무슨고통을 주던지 수구야말것이다 마음놓치마려라

창선은 말이다못하야 징을내며

여보시우 그만큼말하였스면 갓것이지 아버지께대하야 분푸리를한다고하니 분푸리를하면 엇더케하며 고통을 하시게하면 엇더케할터이요 사람은 감정동물이라 분김에는 압뒤를 헤아리지아니하고 말을하지만 나를어기다두고 그싸위말을한단말이요 에이악마갓흔인종! 말이라고하오

하고 흥분되어조로 소리를높히었다 경렬은 그제야 흥분을 조금낮추며



오냐 코만두어라 내가 분김에 말을 잘못하였나 보다  
하고 분금이 집으로 도라갔다 창선은 경렬이가 도라간 후에 부친을 보며  
아버님! 이곳이 위험지대를시다 아모리 갓흔동포라도 마음을 미들수업습  
니다 돈을 아니주시면 그냥 거절할하지 마영찬의 말을 왜 하심닛가 경렬이  
가 마가에게 가서 그런말을하면 아버님에대하여 마가는 악감을 품고있다가  
무슨화가 밋칠는지암닛가

엇지하야 내가 말을 아니하는냐 마영찬에게는 한푼을저도 괴한을 어기지아  
니하고 내게는 삼년만에야 갑호면서 또 달나고하는구나 그뿐이냐 너보득키  
위협적으로 달나고하니 내가저를 무서와 호락(이 줄듯하나 그뿐아니다  
마영찬은 불쌍한놈인데 그놈과천하여 다니는것이 나에게는 리할것이업서  
々하는말이다 마가와천하다는놈 처노코는 내게리익은 조금도업다 그놈들  
을 알게되는것도 경렬의 소개가아니라

아모리 그러하시드래도 조흔말을하시지 왜 마가를드러 말삼을하심닛가 그  
런말삼은 아주위험한 말삼이올시다 경렬로말할지라도 무산자 무서운자를  
시다 거리길것업는 사람이 마가에게부터서 아버님의 하시는말을하면 마가  
는 결코 가만아니잇슬터이니 진작 경렬을 불러서 청구대로하여주고 악  
감을 푸러버리도록하십쇼

너는 그걸쟁이소리마라라 마가々 악감을품으면 내게엇지할단말이나 나는  
조금도 겁하지아니한다 경위가 엄밀한 이곳에서 저어들이엇지해  
아버지 그래도 그럭치안습니다 남과 할원할것은 업습니다

할원이 무손할원이냐 내돈가지고 나안주는데 할원이야 그런것을 겁을내면  
이곳에서 못산다 겁내지마라라

하고 원일은 아달말을 듯지아니하고 종시고집불통을한다 창선은 부친이마음  
을 이와갓치 견집불통함을보고 의심이 업지아니하야 이와갓치 생각을하여보  
았다

아버님이 무삼일로 리경렬과 저와갓치 악감을가지셨나 마가의 돈만잡는다  
고그닥지 극도로 악감을아니가지실터인데  
하고는 부친을 다시바라보며

아버지! 리경렬과 무삼일로 그와갓치 노여섯습닛가

흥! 내마음이 조을수가잇는냐 내게와서 갓가이하든사람은 모다마가의심  
복이되고마라다 그리하야 썩라노은돈을 수봉하기가 극란이다 이는누구의  
사닥인줄아는냐 이는모다 경렬의사닥이다 이곳에와서 심복을아니들수도  
업다 소위나에게갓가이 다닌다는놈은모다마가에게로 가고업다 그러니 그  
놈들은 무엇으로 마가의체를밋는지 내게는조금도 순종할아니하고 지금 경



털어와 갖치 었던 때에는 막 강제로 돈을 대용을 하라고 하니 사실 생각하면 나는 이곳에서 고독하게 되었다

아버님! 그리하실수록 인심을 수습하셔야 하지요 실인심을 하시면 웃지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실수록 인심을 수습하셔야 하지요 실인심을 하시면 웃지하실 것입니다  
다름대로 이사를 할때 할지라도 실인심한 이보다 득인심하고 떠난 뒤라도 남에게 욕을 아니 먹는 것이 조치한 습니다

이에 그 지각업은 말마라라 득인심하고 돈모을 수는 없다  
하고 원일은 탄평으로 있다 창선은 비록 나히가 이십이지만은 그의 마음은 오십이상의 사탐과 갖치 김고도 근신성이 있다 그리하여 창선을 속으로  
아버님은 비록 저리하시나 내나 인심을 어더 두어야 하겠다  
하고 리경렬의 집으로 갔다 이때 경렬은 원일의 집에서 도라와 한창 분이나서 속으로

웃지하면 조졸가 내가 이양지내다가는 죽기 전에는 남의 소작인을 면치 못하고 업손여김만 바드리니 차라리 마적의 수령이 되어 남을 만주들판에 서 마음대로 뉘여다니며 마음에 가득차인 울적을 틈타 불어오는 북풍에

다 써서 버릴가보다 아! 분하다 이분을 어디다 푸러 버릴가 마영찬에게 김원일이 가 하든 말을 하면 그무지하고 열화갖은 성미에 당장 김원일의 집을 도륙이라도 하라 드르렸다 그러케 독화를 당할 줄 알고 창선이를 보기로 서니 마에게 말을 할 수가 있나 그는 창으로 인정상에 못할 일이다

하며 주먹을 불끈 쥐고 부르스며는 중이다 가 창선이가 음을 보고 우히려 흥분이 덜 풀인 음성으로

아! 창선이나 네가 었지하야 나의 집을 차저 오느냐 너는 나와 절교를 할 줄 아는데..... 왜 나와 시비를 하라 왔느냐

하고 창선을 유심이 본다 창선도 흥분된 듯이라 아나나 오는 우슴을 강박하면서 천만에 말삼이 올시다 제가 존장과 시비를 하라 올이가 잇습니까  
흥! 앓가는 나에게 주먹으로 치라 대어들더니.....

그당시에 일은 말삼하실 것 아니 올시다 그때에 저의 아버님과 불호관형이 이러나는데 저의 입장으로가 마이 잇서 구경만 하게 되엿습니까

그야 그것치 아달된도리에 가만이잇슬 수야잇는나 그것치만 너의 아버지는 내게 대하야 돈도 중하지 마는 넘우나 물인정 하시게 하느니라

그는 대개 취리하는 너의 본색이 올시다 그것을 얼마큼 아라서 교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노음을 푸세요 아버지 마영찬의 말삼을 하시엿지마는 그는



공연한 망영의 말삼이니 마가더러 그런말삼을마세요 마가드르면 마음에 조화할리가잇습닛가 더구나 우리와는 민족이다른터에 존장제서도 이로울 것은 업습닛가잇습나

알! 이를말이나 지금은 너의아버님과 잠시감정으로 말담들이되엿지내가 그러케 요량이업시 말을하겟느냐 그는 조금도넘너마러라

네 그러실줄은 압니다 그러치만 세상인심을 알수가잇습닛가 그리하여엿 좁는말이올시다 그런데 이백원은 영양을 다려오시기위하여 어드시라고하 신다지요

그렇타 너아득게 순희가아니면 돈을 더 어드라아니들겟다

그러시면 돈이되고보면 존장이 다리라가시나요

그럼 누가갈사람이잇느냐 내가갈수밖에

존장이가시고보면 압뒤손해가 불소하리니 다른사람을 보내서다 다려오시도록하시지요

흥! 너는 지각이업는말마러라 이세상이 웃더한 세상이라고 불소한돈을주어서 보낸단말이나

만약에 저의아버님께서 불응하시면 돈을잇디케 변통하여가지고 가시렴닛가 할수잇느냐 너의아버님은 내가 망영찬과 친하여다니는것을 시려하시드

라마는 망영찬더러 사실을말하고 돈을어들가한다

창선은 이말을듯고 한참무슨 생각을하다가

여보세요 망영찬으로말하면 민족이다른사람이 아니오닛가 그뿐외라 그놈의 심보란 음흉하기 짝이업는놈이올시다

나도 그런것을안다

런을아시면서 그런말을하시고 돈을달라고하세요 그리다가 그놈이돈을드리고 나중에 사불여의하여 돈을 상환치못할때에 돈에대상으로 영양을 달나고하면 엿지하실터이오닛가

말이되는나 내가 그애를잡히고 돈을어더쓰지 아니한것인데 그러케 무리한 말을 할리가잇느냐

허! 저런말삼보았나 그런사실을 말삼하시고 돈을달라고하실때에 영양으로 별모를삼으라고하면 못하겟다고 하실터이오닛가

암! 그때당하여서야 못하겟다고할것이지

만약에 그리하시면 저놈은 제욕심을 채우지못하는것을 악감을가지고 전일 체무차지 갑호라고하면 그것이 난처한일이아니오닛가 그때에는 존장의 입장이떡 골난하실터이올시다 생각하여보십쇼 그때에는 존장이 더욱 이곳에서 사실수가업게됩니다



그럴줄은 알지마는 너의 아버님은 그와 갓치 거절하시고 달이는 변통할수업스니가 여복하야 그런생각을 하지안나  
그러시지말고 제가 경성가서 영양을 다리고올터이니 주소를 일너주십쇼  
아니 네가 었더케 다려온단말이나 대관절 돈이잇서야 아니하는나  
돈은제가 변통하야 가지고가지요 제가 가서 몸값만 청장하면 아모이의업서  
다리고 올수가잇겠지요

그야물론이의는 업슬것이치마는 아모리 부녀간이지만 순희가엇지할는지  
그것이 알수업다 사람의일이란 알수가잇는나 지금아이들은 저의들세리부  
모도모르게 약혼이니 무엇이니하여가지고 부모의말도 복종을아니하닛가  
순희만하여도 그간에 내외주점에서 지낸하닛가 그동안에 마음이 었더케  
변하였는지 알수가잇는나

화류계가 마음에조아서 실타고하면 그때에는 할수업는일이치마는 었전일  
인지제가 한번가서보고싶흔 마음이잔절하여서 그리합니다

네가그리케생각을하니 고마운일이다 만약에 제가 시러하드래도 잘달내여  
다리고오나라

하고 주소를 일너주었다 창선은 즉시 이천원을가지고 경성으로향하였다 순  
희은 과연 경성에서 었지나 생활을하고잇나 그의경로를 말하여보자 순희은

십칠세의 어린애로부모의 사정에의하여 백원에 괴중한몸이 팔이고 경성역에  
서 연약한 순희의 창자를 쓴는듯한 괴덕소리에 눈물을써리며 부모를산설고  
물설은 만리이여 만주로보내고 포주 박천만의집으로 드러왔다 이후 순희는  
조선전변에드러가 가무를 배우기시작하여 일년동안에 수업하였다 가무들 다  
배우후는 영업자로 아니나 갈수가업다 그리하여 매월삼십원식을받고 당주동  
최흥일이란자의 내외주점으로가서 밤을낮을삼으면서 단잠을못자고 비애와  
고통으로 그날을 지내가며 오직 만주에잇는 부모를 하로바비 만나기를  
축원이다 이러한사상으로 화장비에도 절약에 절약을더하여 월급중에서 저금  
하기로만 힘을쓴다 한푼이라도 저금을더하야 자기의몸값도갑고 만주에잇는  
부모를 차저갈러비를 준비하는것이다 이와갓치 근검저축한것이 수년동안에  
수백원에달하였다 순희는 저금한것이 수백원에 달하매속으로

이러하면 몸값도갑고 만주로부모를 차저라갈 러비는되겠다

하고 마음의 기거하기를 마지아니하고 저금한것을 전부차저가지고 천만의집  
으로갔다 천만이는 부르지도아니하였는데 제풀에 온것을보고 우스며

순희이나 오날은 한가한나  
네 오날은 한가해요

안되었구나 너의들이 한가하여서 쓰겟는나



저이도 좀 한가할적이었어야지요

이애 큰 날소리 하는구나 최홍일이가드르면 조아하겠다 었지했던지 너이가 눈코를 쓸새가 업어야 최홍일이는 돈이 생기지 아니하는냐

그러키야하지요마는 저이는 동두철신인가요 쉬는때도 좀있어야지요

좀 쉬는시간도잇어야지만 주인되어서는 자미가 업다는말이다 그런데 밤샘을하고 고달폴터인데 한가하면 낮잠이나 자지 무엇하랴 할일업시왔는냐 그리다가 너업는사이에 손님이나 오면 야단을아니치는냐

판계업서요 다니여오겟다고 허락을받고왔스닛가요

무슨긴한일이잇서허락까지받고왔는냐

긴한것은 다른일이아니라 제가 아버지와의 남이되어 이화류계에 탈신을하라면 모다 돈이얼마나잇서야할닛가

천만이는 이말을듯고 순회를 유심이쳐다보며

그것은 왜 무리보는냐 무슨수가 낫나보구나 장제남편을어뎛는냐 순회는얼굴이발그레하여지며

아니에요 돈잇는 남편을어디서그리는것이아니라 근삼년동안이나 화류계에서노트가 실습니다그려 그래서엇더케 아버지의빚이나갓고 탈신을할가합니다

그러면 대관절 돈이문대가아니냐

글세요 돈은얼마가되던지 회계를해보세요

천만이는우스며

이애보아라 수가낫구나 그러면 어디세음을쳐서보자

하고 장부를내여뒤적／＼하더니 순회를보며

이애 누가너를 다려간다고하더냐

아니에요

그러면 공연이맞분데 시간만허비치아니하는냐 탈신할자신이잇서가지고

보아달라고하야지

네 돈은넘너마시고 보아주세요

이애 그러면 보아주는 하겟다마는 네가 아직까지도 잇해동안이나 괴한이남었는데.....괴한이내에 해악을하고 탈신을하라면 압뒤손해가적지안타

인제도 이해가 남었세요

그러니는생각이업는냐 너의아버지가 백원을가져갈때에 오년계약을하지아니하였는냐 금년이삼년째이닛가 인제도 올말고이년이나 남지아니하였는냐

그러키는하지요마는 좀노아보세요

그래라 네가갑을자신이잇스닛가 그리하는구나 네가괴한을쳐해주고가면



먼저 백원은 본전만갓갓지마는 그한전에 해약을하닛가 백원에 대하여서 리자를갓갓다 그러니 그런줄아려라

네저는물나요 아버지 경우대로 바드십쇼그러

네가내게온지가 삼십개월이다 삼십개월이면 백원에대한리자가 오월이닛가 삼오십오하고 리자가 일백오십원 본전 백원합하면 이백오십원이오집에서 이십개월을잇다가 영업부로 나갓스닛가 이십개월치는 월에 식비화장품비 병하야 심오원식치면 이십개월치가 삼백원이니 도합이 오백오십원이로구나 원만하면 삼백원에 대하여도 리자를갓갓다마는 그것은 그만두어라

고맙습니다 그러케까지 생각을하여주시니…………… 그런데 제가영업부로 간후에 열달간은 월급중에서 심오원식은 드렸스닛가 그것은 감하게야지요 을치네말도올라 그러케식악키하라면 삼백원의 대한리자도 내갓갓다 삼백원에대한리자오피스로하면 그것이 일백오십원이다 그리고보면 일백오십원은 서로비겨 찌러질것이아니나 그라고보면 삼년간에 소득은 내게대해서는 조금도업구나 그래서야 누가 너의들을 다려다노코 이영업을한단말이나 순회는 이말을듯고 가만이 안저서눈을 삼작／＼하고 무슨생각을취다가 천만을바라보며

아버지! 그러니 처음백원에대하야 엇더케 리자를 일백오십이나 바드십닛가 그것은 넘우나 심하지아니하세요

어! 그리하기예 내가 무엇이라고하엿는나 처음계약을 이행하고 오년을 채우면아니맞는다고아니하엿는나 네가 배약을하고 가는이상에는 내가손해를 볼수가잇는나

아버지! 그리하지말고 제말대로 하여주세요 엇더케?

백원은 본전대로 바드시고 식비화장품등 삼백원은 그간제가버려드린 일백오십원을 감하시고 남겨지 일백오십원은 백원만바드시고 제몹을노아주세요 그리시면 일후라도 제가 은혜를 갓갓습니다

천만이는 눈을크게 찌바라보며

무엇이야 나는 영업을아니하고 너의들 조흔일하라난나보구나 그런어림업는 소리말고 오백오십원을 내여노아라 그러면 너는 네마음대로 할것이아니냐 어는봉을 무릿는지 모르갓다마는 너를 다려갈생각이잇스면 오백오십원을앗기여아니내여논는단말이나 남은 괴생하나 췌여드리라면 몇만원식도 드리는데…………… 대관절 누가너를 다려가라고하는지 그사람을 다리고오랴무나 내말을 할것이니? 내가말을하면 오백여원아니라 오천원은아니내



여노젓는나  
아니에요 누가저를 다려가서 그리는것이 아니요 제가자유로 탈신을 하라고  
합니다

네가 자유탈신을하라고해 그러면 그동안에 돈을마니모았구나! 그것치그  
영업이 조화가 무궁하니라  
무엇이 조화가 무궁해요

사실작부로마는 돈을모을수잇는나 김지리지하고 돈뿐이나 잇는자이면  
수단을 부려야 돈을구경하지

순희는 얼골이 밝애지며

작부는술이나 따라주고 소리나하라면 소리나하지 만수단이 무엇임닛가  
허허 너는바로 작부중에도 털어나다름이 업는체하는구나 그리속이지말고  
너를 다려갈사람을 다리고오나라

정말이에요저는 그런부정한 행실은아니하였습니다 이번에갑호라고하는  
돈은제가열달동안을 월급중에서 십오원은 아버지께드리고 남저지십오원  
은화장과 의복을 절약하고 또 손님이 소리웃게 수고하였다고 돈원식주면  
그것을 모은것이 수백원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리케 피뎌를 훌이고모은돈이  
니이백원만바드시고 탕감하여주세요

하고 애원하였다 천만이는 코우숨을치며

흥! 너만 이백원모을때에 피뎌으로 모은줄아는나 너를십칠세에 백원을주  
고 다려다가 오날너만치키었스니 그동안에 나는얼마나 힘을드린줄아는나  
너는거저 자랄것갓지 너도먹고 입고자랐겟구나 나의은공도 생각을하여야  
저나는 손해가나던지 마던지너만 탈신을하자는말이야

하고 조금도 동정하는 피색이엿다 그리고돈을가지고 왔는야고 독촉만한다  
순희는 잠간주저하며

돈이야 아버지께서 제말대로 허락만하시면 아니드릴가요

엇더케 허락을해

제말대로 이백원에요

아니될말이다 이백원을가지고왔거던 내여노코남이지 삼백오십원은또모  
아서 갑호라무나 잇해동안에 삼백여원을못모겠는나 그리고그한한차면너  
는그냥탈신을할터인데..... 그리고네집이가벼웁게아니되는나 내말대로  
돈을가져왔거던 내여노아라 그러면 매월이백원에대한 리자이십원은업슬  
것이다 그뿐아니라 내게맛기여두는것이 좇치아나하냐 오년이란 괴한이찬  
후에는 도로좁았구나 만약에 이백원을 내게맛기면 처음백원에대한 리자도  
계산을아니할터이니 너는아려하여라



하고 이백원을 쓸욕심에 샅샅이 임을 지키는 대로 돈을 드리는 것이니 제말대로 하여 주세요

아버지하라는 대로 돈을 드리는 것이니 제말대로 하여 주세요

하고 간청하였다 천만이는 돈을 바다 척척 세며  
글쎄 내생각을 하여 보아라 네 청을 엿더케 듣는 나 내가 손해가 나도 한두푼이  
나는 나 너를 다려왔다가 삼백여원식을 손해를 볼 수가 있는 나 인제는 네 빚도  
가벼워 지자 아니하였는 나 내일이라도 탈신할 생각이 있거던 삼백오십원만 내  
여노으려무나 그러면 너는 아주 탈신이 되고 자유행동을 할 것이니 그때에야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간섭을 한단 말이냐

순희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후—내여쉬며

에그 그러니까 인제 도 이삼년이나 더 잊어야 하겠어요

암! 그러치 이삼년만 지내면 네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니 다 생각하면 이삼년이면  
듯 하지만 눈썹 감고 지내면 잠깐이다 네가 열일곱에 내게 온지가 엿그제 것  
흔데 년 지시 삼년이 되지 아니하였는 나 무정한 세월이 물흐르듯 잠깐잔다  
그러니 삼년을 엿더케 지내요..... 그런데 이백원 바드신 것은 무슨 조건으로  
바드신다고 령수증을 하여 주세요  
허사 자식도 나를 맏것스면 고만이지 령수증이 무슨 령수증이냐 네가 정내

내대하야 이갓치 삽々이 생각하면 나도 내대하야 아는 정로는 정 아니 보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면 엿더케 하세요

흥! 마음대로..... 지금 너를 신정서 넘기라고 하는데가 있다 마는 참아 그

곳으로 보낼 수가 업서 못하고 있다 너는 그런 줄이나 아려라

저를 그리로 넘기시면 얼마에 넘기세요

압뒤비육병하면 료백여원이니 될 것이다

그러면 제 빚은 더 하겠어요

그야 물론이지 어디로 넘어가던지 비용은 들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는 아모리  
괴롭드래도 이삼년간만 더 참아라 그러면 그동안에 조흔 남편도 만날 것이요  
만주에 계신 부모도 뵈을 것이다

에그! 이년의 괴구한 운명! 인제나 이 괴로운 세상을 이겨 버려나

하고 쌍안에서 구슬 같은 눈물이 떨어저 침마 압홀져 신다 천만이는 우는 순희  
를 물그림이 바라보며

울것업다 다운명이요 팔자이다 너는 작부라 신정에 있는 것보다가 대면 오히  
러 재밌한 영업이다 사람이란 내아테 사람을 보고 살아가야지 웃사람을 쳐  
다보고 살면 이제상에 살 사람이 얼마 못될 것이다 너보다도 팔자 사나운 것이



좀만은 줄아는나

그야저만못한 사람도잇겟지마는 그러기로서니 이만못한 팔자를타고난 사람도잇슬가요 저는 저하나뿐인줄압니다

하고는 다시령수증 써달나는 말도못하고 당주동 영업집으로왔다 이때에 마침 주객한축이 드러왔다가 순희가업슴을보고

여보! 홍일이..... 순희는 어디갔소

하고 주인홍일을 불너묻는다 홍일은 방에잇다가 마루로뛰어나서며

어서올나오십쇼 순희가어디를 갔슬리가잇슴닛가

하고 집안을 휘々들너보며

이애가 어디를가고업슬가? 이애 반월아 순희가 어디를가고업는나

하고 정반월이란 영업자를부른다 반월이도 순희와갓치 홍일의집으로와서 작부로잇는 당년십팔제에 쏘다운녀자이다 반월은과연 자기의부모도 어디인는지모르고 만주쌍에서 마적에게 죽을번하다가 던행으로 엇던자에게 구함을입고 경성까지와서 홍일에게 오십원에 작부로팔여 가련한 박명한마인이다 그리하야 반월은한업시 고독한몸으로 자기의사정을 말한마디할데업서 말업시 눈물로 세월을보내다가 순희가 작부로드러간후에 천형갓치 대우를하며 정숙케지내인다 그리하야 한시라도 순희가업스면 반월이는 천형이나 어디를간듯

이 허전 / 하여 지내는고로 항상 순희를대하면

언니나는 잠시라도 언니가업스면 죽을갓치해 이리다가 만일언니가 다른대로가면나는엇지하오 일후언니가 다른대로가거던 나와갓치갑시다 나는언니를꼭 쫓차다닐테야

하고잠시도 떠리지기를 시려하다가 이날 순희가 천만의집을 말업시갓슴으로몰났다 반월은 홍일이가 순희를 부르라는소리를들고 연해대답을하며

언니가 어디를가고업슬가 변소를가나

하고 변소까지 부산이찾는 찰나에 순희는 대문안으로 드러섰다 홍일은 갈범갓흔소리를 버럭질으며

너는어디를 갔다오는나 잠시라도 네가업스면 오시는손임이 자미가업서하시는데

리순희는 태연한안색으로

에그미안합니다 손님이 벌써오시엿서요

하고 마당에선 손님을 바라보며 안나오는우슴을 억지로우스며 방으로안내를한다 손님들은 순희를보고야

을치순희가잇서야지 순희가업스면 아모취미가업드라

하고방으로드러가안는다 순희는 술상을보아가지고 드러가술을 따라원하는



대장가라하는 자 이 술잔을 잡으며  
이애 순희야 나의 주성을 알지  
순희는 쓴우슬을 방그시우으며

장주사나리의 주성을 제가엇지아라요

그래물나 — 정말이나

정말이애요

열혜 박주사라는 자이엇다가 순희를 탁쳐며

이애 순희야 장주사는 소리업는 술을 아니 잡수신단다

그러시면 진작그러케 말삼을하시지요 라지오나 트러놀가요

장주사는 열々우으며

흥 — 그러치네가 그런말할줄아랏다 라지오는 어디가서 못듯겠느냐 행길로  
가면 장타령소리갓치가게마다 하는소리인데 누가그소리를 듯자고했서……  
……너는 좀 못하겠나

글제요 라지오소리갓치 명창을 장타령갓다하시는데 제소리갓흔것이야 무  
슨비렁병이소리로 아라드를는지 어디집이나서 할수잇세요

이애 라지오소리가 잘못하고나저서 그리는것이아니라 종로방면을 나서면  
가게마다 하닛가 하도천하여서 하는말이다 이애그리지말고 할마대하여라

하고 순희의 손목을잡는다 순희는 불황불망이 손을슬그머니 무릅밧호로감추  
며

정하라시면 못하는소리남아 한마대 할터이니 흥이나보지마세요  
하고는 안나오는 음성을억지로 다듬고 방긔우으며

방안에 겨노은촉불늘과이별하엿관대

것르로눈물지고 속타는줄 모르는고

저촉불날과가타여 속타는줄모르더라

장주사는 술잔을 들다가 슬그머니노며

이애 그시조가 싸닥이잇는 소리로구나

순희는 우으며

미안합니다 이소리는 제사정의 소리를시다

그러면 그등안에 정낭을이별하고 속이찌 상하는 모양인가보구나

순희는 열꽃이 불거지며

저는 그런일업제요

그러면 누구와 이별을하엿단말이나

아시는바와갓치 저는 만리밧게부모를 이별하고 그리합니다

그러면 내사정이요 서름이로구나 이애 그사정은 듯기신타 다른소리한마대



하여라

그러시면 다른것으로 하지요  
하고 기침두어 마대를 하여 음성을 가다듬고

술이라 술이라 하니 무삼술리만 녀기는다

천인절벽에 락々 장송내기로다

길알에 초동의 접낙시야 길어불줄잇스랴

장주사는 손벽을치며  
이애 그술절개 굉장하구나 네절개만이나 하구 하々々

하고 선우숨을치며 손을드리 순희의악개를탁치고 팔로더듬  
을잡으라고한다 순희는 절개를하여 손을감추며

왜 이러세요 어서약주잔이나 잡으세요

약주잔잡는데 무슨소용이잇는나

소용이 무슨소용이예요 약주잡수시는것이 소용이지요

자잡는데 무슨술을먹어

잔을잡으시면 약주는 잔가운대잇지안습닛가

글세나도 잡을줄도알고 먹을줄도한다마는 네가 좀 드러서원하고 소리한마  
대 더못하겠는나

백 의 처 녀

백 의 처 녀

순희는 아니나오는 우숨을 억지로우스며

장주사나리고 만약주잡수세요

실라 나는시려네가 잔들고 소리한마대해야 나는술을먹겠다

하고 시달이기를 시작한다 순희는 죽기로 소리가 하고심지 아니하건마는 모

페할수업술줄알고 잔을두손으로 드러원하며 한마대를 또부른다

추월이만정한대 숨히우는저기력아

상풍이일고한대 돌아갈줄몰으고서

밤중만 중련에떠잇서 잠든나를깨우노

장주사는 잔을바드라하다가 사조가 뭇치나자 순희가잡은잔을 책썩리치며

요년아 네가요리케 반지빠르거든 작부노릇을 말야무나 네가 우리를누구로

알고잇다위 소리만하는나

하고 눈이새죽하여 순희를 노려보는데 술잔에술은 순희의 침아압자락에가

업질너지며 방바닥으로 흘너내리면서 바지까지저々드러온다 순희는부지중

에얼굴에상과가되어 벌떡이러서 술을떨어버리며

왜! 이러케 망녕을부리세요 소리를하라시닛가 저는시조의 의미는모르고

배운대로아는대로할것이지요

에이 앙큼스러운년! 네가누구를 조롱을하는나 처음에는네사정의서름사



조—둘째는 되도록하게 내절개를 비해두고한시조 지금한것은 우리더러 왜 갈줄을모르고 괴롭게주는나 한것이아니나.....어—되다가 찌그러진 년—제가작부면 작부의 직책을하여야지 그게무슨 아니요운버릇이야

하고 좌우를보며  
여보게가세 여기아니면 술집이업나 이아니참고 방자한이년에게와서 술을  
먹게

한다 동행한자는 이구동성으로

장형의 말이올은말일제

하고 었던자는 순회에게 짜일듯이대여들며

이애 순회야 너는 선생에게 그런소리만 배앗는나

하고 활극이 일야할지음에 홍일이가 방으로드러와서 눈을 회々들너 방안

에제인을보며

왜여러분이리심닛가 고정하십쇼

하고 순회를보며

너는손님으론을 었더케 잘못대접을 하였기에 이러케하시는나

하고 눈이찌지도록 남무랬다 순회는아모말옵시 한옆해가비키여서 두눈에

서구슬것흔 눈물이 덩결— 찌러진다 그의 애련한정경은 누가보던지 동정

의눈을 금할수업다 처음시비를 걸던 장주사는 순회의 눈물흘이고 애련이섯  
는것을보고 고만가엿고도 불상한생각이불이듯하야 도로주저안지며

여보 홍일이고만두오 술먹고 시럽시하기가 애사이지 순회만하여도 제사정

애그리하였나보오

하고 술그머니 놓을치고 좌우에 주봉을보며

안제 우리가참어야지 뉘를치면 무엇하나 락화뿐이지

하고 홍일을보며

자—세잔평작으로 술상이나 다시보아드려오

하며 순회의 손목을 잡아안치며

이애 고만두어라 네가 이영업을 아니하면 이어나와 이영업을하는 이상에

는 손님께 이런말삼도듯고 저런말삼도듯지 별수잇느냐

순회는속에서북받쳐 나오는 우름을억지로참으며

별말삼을 다하십니다 제가여러분께대하야 실례한일이만치요 이것치용서하

야 말삼하시니 넘우나감사합니다

하고 안씨를안이한다 장주사는 구지안치라고 잡아안친다 순회는마지못하야

그대로 주저안졌다 홍일은반월을불너서 술상을 다시보와 드려보내었다 순

회는의상을바루잡고 술상에갓가이안저 주전자를 잡아술을잔에부었다 장주



사는 선우승을 우스며

순희야 내가 또 청할일이 있스니 드르려느냐  
무슨청이세요 말씀하세요

너더러 다른청이겠느냐 소리한마디 듣자는청이니 앓가와같은 너의서름의  
시조는 고만두고 다른소리로 한마대하야 주석의취마를 부흥하여보려무나  
어대제가 그러케 마나배운것이 있서야지요.....그런대 노래라는것은 저  
의정곡에서 우러나오는것이을사다 그것마는 용서를하여주어야합니다  
올라네말이 사실시가는 제정곡에서 우러나는것이야.....네가아무리  
흔사정이 정곡에맺쳐슬지라도 그정곡은 좀 참고 활발하고 씩씩한것을 하  
나하야라

네아는것은 업지만 하나하지요 또 꾸지람이나 아니 드를는지요  
그럴리가있나 어서하야라

순희는 다시괴침을 두어마대하고

창밖게국화심어 국화밋헤 술비저두니

술의자 국화파자 벗오사자 달아쉴다

아해야 거문고청쳐라 벗님대접하리라

소리가 났차자 좌중은 일제히 손뼉을치며

참! 잘한다 주석에는 그런소리를해야 흥취가나지아니하는나  
하면서 술이 취도록먹고 헤어졌다 이때순희는 이주정연을 대접하노라고 그  
속이 얼마나 썩고 썩었스라 순희는 장주사등을보내고 자기가 거처하는방으로  
드러가안지며

예구이년의팔자가 었지하면 이갓치도 괴구할가  
하고는 천정을바라보며 무삼생각을 이육제하다가

에라이년이 이설을하고 살면 나중에무슨락을보고 만주게신 부모를뵈옵겠  
은나 속만태이고 고등만당하리니 진작죽어서 모든비애와 고통을 이저버리  
는것이 오히려 내게는행복이다 사람이한번 죽어지면고만이지 행복이무엇  
을인지고통이무엇인지 알리가잇는나 일사면도무사이지  
하고 무엇을 결심하고는 하수갓흔 눈물을 죽々흘이는데 반월이가 드러와보고  
언니올면 무엇하오이세상에 태여날적에 팔자를그려케 타고난것을 었더케  
하오언니는 부모가만주게진것을알지다아니하오 나는부모가 만주어데게  
신지도 모르코잇는데 언니는 내게다대면 오히려낫지아니하오  
하고딩다라눈물을 먹으우며 위로를한다 순희는 무슨생각을하고 또다시하다  
가반월을바라보며

네나네나 이팔자에살면 무슨행복을 보겠느냐



하고 벌떡이러서 나간다 순희는 대문밖으로 나와 좌우를 휘둘러 보더니 속으로  
 약국에 가서 사자고 하면 물론 아니 팔 것이요 치의만 바들렸다 에라손쉬웁게  
 결단을 하자

이와갓치 혼자 종일 거리더니 마주보이는 가갓에 가서 양재물 오전어치와 거문  
 엿 오전어치를 사서 수건에 싸가지고 말을 어대로 내여 놀지를 몰나 주저 / 하  
 다가 사적단공원을 향하고 간다 아갓 순희는 무슨일을 차저가는나 이세상의  
 모든고통 비애 오뇌를 잊고 영원의 나라를 차저가는나

울갓 창갓한 술집사이로 인왕산으로 부터 내리는바람은 순희의 옷압깃을 헛치  
 고 답갓한 가삼을 시원히 하여주는듯하다 순희는 재실마당에 홀로서잇는 반  
 송을 바라보며

아! 저반송은 리태조께서 심으신것이라닛가 지금 오백여년이 되었구나 저  
 반송은 오백여년간 인간성쇠를 다 보고잇스렀다

하고 속으로 시조하나를 불렀다

반송아 말무러보자 고금을 배알리라

재자가인이 몇갓치나 지나더냐

이후에 못는이잇거든 나 도할찌일너라

이와갓치 읊으며 거름을 밭내치는때로 거러 황학당뒤 송림사이로 드러갓다 이

때이다 과연 염나국에 최판관이잇서 인생의 주요장단을 맞췄다하면 최판관  
 은 방장인생의 명부를 적쳐노코 순희의 명지장단을 판단할터이다 누가잇서 순  
 희의 가련한생명을 구원하여주랴 순희는 송림속에 잔디밭헤가 펼쳐주저안지  
 며

아! 그자리편하다 이자리가 나에게 대해야는 행복의 자리로구나

하고 송림사이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에 무심한 구름은 자최업시 인왕산으  
 로 넘어간다 순희는 구름을 바라보고

사람도 저구름과갓치 이세상에 형체라는것은 태여났다가 죽어지면 아주자  
 최도업시 사라질것이아닌가 그러닛가 오늘날나는 이세상에형체도 마지막이  
 로구나 나의형체가 업서지면 부모를 다시 뵈옵지못하겠구나

하더니 또취후에 소리한마대를한다

인왕산 높흔봉에 쉬여넘는 저구름아

순희눈물을 비삼아 띄여다 가

부모개신 만주쌍에 썩려중이 었더리

이와갓치 소리를헛헛질너 부르코 사가지고온 양재를싼것을 풀고 양재물덩어  
 리에 삼키기알마진것을 거문엿을 퍼서 싸서 입에다가 드러뜨린다 아! 이위괴  
 일발에잇는 순희의 생명?



이때에 반월이는 순희가 한숨한마대를 쌓이게하도록하고 박그로시름업서나  
 감을보고 만단의아하야속으로  
 저이가 어대를갈가 또 술군이냐 왔다가업스면 야단이냐만나라고  
 하고 뒤를쫓차나가보았다 순희는 가에서 무엇인지 사는것을보고  
 을처항상속이 불편하면 박하사스탕을 사서먹더니 속이뒤쳐여서 박하사스  
 탕을 사나보다

하고 무심코한으로 드러와마루에가 거러안져 원산을바라보는 찰나에대문에

누가와서 기웃／＼ 드러다본다 반월은 또술군이냐 온줄알고

에그 구차너라 또 술군이오지아니하나

하고 대문을내다분즉 양복한이십가량의 청년이다 반월은 물그림이보며

누구를차지심닛가

하고 물었다 양복한청년은 반월을 유심히보며

여기가 리순희잇는집이요

네 그럿습니다 어대서 오시엿세요

네나는만주서 리순희를 잠간보라왔소

반월이는 만주서왔다는 소리를듯고 자괴를모라온것보다도 더반기며

아! 만주에서 오시엿서요 순희는 요압해갓스닛가 곳 드러올것이올시다

드러오시지요

하고 안으로청하엿다 청년은 서슴지아니하고 안으로드러와 마루에거러안은

다 흥일은 술이나먹으라 온줄알고 마루로나서며

약주잡수라 오시엿습닛가 방으로 드러가시지요

청년은 흥일을 도라보며

아니요

그러면 누구를 보라오시엿습닛가

네순희를 좀보라왔습니다

어대서요

만주서요

네그러시면 순희의 부모께신데서 오시엿습닛가

네그럿습니다

흥일은 반월을보며

반월아 순희이가 어대갓는나 손님이 차져오시엿다고불나라

저금 막나갓세요

나가는어대로나가

아마가에서 무엇을 사나보아요



하고 드러오기를 심분가량이니 기다려도 아니드러온다 홍일은 기다리다 못하야 반월이더러 어서불너오라고 독촉을한다 반월은 압기에게서 무려본즉 가주인의말이 양재물과 검은엿을 사가지고 이압길로 나가는데 공원편으로 가드라고 일너준다 반월은 이말을듯고 의심이벗서드러가 급히집으로 도라와 홍일을보고 가주인 말과갓치하였다 홍일도 이말을듯고 삼작놀나며

무엇이야 양재물과 엿을 사가지고 공원으로가다니 아니할말로 공원으로 자살을 하라갓탄말이나

하고 급히 대문밖그로나가 가주인더러 무려보고

어! 큰일났구나 이일이 심상치아니한일이다

하고 집으로 급히드러와 청년을보며

순회이는 지금공원으로 드러갓다고하니 갓치가서봅시다

한다 이청년은 다른사람이아니다 즉 김창선이다 창선도이말을듯고 삼작놀나 급히 홍일을 따라나섰다 홍일은 창선과갓치 급히사직공원을 바라보며 드러간다 순회는 벌써 황학당뒤에가서잇스니 거탈자나 차저볼수잇스라 홍일은 정문을드러서며 우물압헤잇는 사람을보고

여보 지금 절문너자가 이리드러가는것을보았소  
네 지금 엿던너자가 시름업시 황학당가는길로갑되다

하고 대답을한다 홍일은 급히 황학당을바라고 다름질을쳐서갓다 이찰나에 순회는 마지막의 소리를하야 청아하고 구슬픈소리가 바람을쫓자 홍일과 창선의고락을을이엿다 홍일은 창선을도라보며

이소리가 들이우이소리가 순회의소리요 아! 큰일난일이요 급히가서봅시다

하고 황학당뒤를갓다 이때맞참 순회는 양재물을 엿에싸서 입에넋코채아니 삼키고 잔디밭우에가 쓰러져서

아! 이것을삼키면 부모도 못뵈옵고 이제상을잇고말갓구나  
하며 눈물을하수갓치 흘리는데 홍일이가 급히압호로다라들며

순회야

하고 급한을성으로불넋다 순회는 자괴부르는소리를듯고 감엇든눈을버적뜨고 홍일을바라보며

아! 저이가엇지알고여기를왔슬가 아서라 순명의신이여 순회는 죽는것도 자유를아니주는가

하고 입안에는 엿새까인 양재물을 삼키라드렸다 아! 순회의 생명의압길은 그저남엇던지 양재물은 용이히 목구멍으로 넘여가지를아나하고 거죽에싸인 엿만 녹아서 양재물과운이 입안으로 퍼지기를사작하며 입안은 뜨겁기가불



덩이 문것갓다 순회는 뜨거운데 죽으랴든마음은 어대로갓는지 사라지고 당장에 입속이 화끈거리고 뜨거와 입에 문것을 확대배웠다 그러나 양재물의 독괴는 입안에 퍼져서 입안은 전부하여지고 마렸다 그리하여 말도 잘 할 수가 업서 손손을 뺏아흔들며

아아

하고 소리를칠뿐이다 홍일은 압해와 순회를 잡아흔들며

너 이제원일이냐 엇지하야 여기를왔느냐

한다 순회는 아모대답업시 눈을씩감아버리고 아모말이업다 홍일은 순회의 압흔보았다 검은엇에싸인 양재물덩이는 잔디우에가 떠러져잇고 또하엇해는 양지에 양재물남저지 덩어리와 엇이잇다 홍일은 순회가 양재물을먹고 남저지인지 아닌지물나서 혹 양재물을 먹엇서도 토하게하노라고 순회의입을버리고 손가락을집어너서 구역을하게하엿다 순회는 입안이안파서 손을뺏아저며

아아

하고 소리를쳤다 홍일은 황급한음성으로

순회야 네가 양재물을 먹엇느냐

하고 물엿다 순회는 고개를흔들며

아니요 / 아니먹엇서요 입안이뜨거와 도로배앗혔서요 하고 엇지로음성을내며말을한다 그리고입안이 허여저붉은 침을배앗는다 홍일은 양재물을 그제야 아니먹음을알고 불행중다행하야 하나 그때도 진가를알수가업서

이애 순회야 양재물은아니먹엇지

하고 또물엿다 순회는 점으로독 문는것이 쫓치가안아서 눈살을찌푸리고

글제아니먹엇세요

정말이나

정말이에요

배속이 압푸지아니하냐

압푸지아니해요 양재물은 삼키지아니하엿는데 왜배가압파요 입안만압파요

홍일은 그제야 확실이 먹지아니한것을알고 적이안심을하며

이애배가아니압푸거던 이러나거라 점으로내려가자

입이안파서 못가겟세요

그러면 내인력거를 불너올아

네그리세요

하야 홍일은 인력거군을 부르다가개하엿다 순회는 비록입이 압푸나 녀이거